

화순·함평에 특화산단 추가 조성

생물의약 2산단·학교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곳 국토부 2019년 산단 계획 승인...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화순과 함평에 특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화순은 생물의약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함평에서는 축산 분야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전국 시도 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전남지역에는 2개 산업단지가 늘어나는 등 전국에서 14곳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전남에서는 화순생물의약 2산단과 함평 학교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화순생물의약 2산단의 경우 지정면적이 31만8000㎡(산업용지면적 21만5000㎡)로, 이미 조성·분양이 완료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독감백신공장, 화순 전남대의 생명과학융합센터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 연구소 등 시설들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생물의약연구개발, 시료 생산, 임상시험 등을 위주하는 시설 유치를 나서 지역 생물의약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전남도가 이미 화순을 비롯해 나주·장흥 등과 공동으로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 산업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의 생물의약 연구·생산·임상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앞서 전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2346억원을 투입,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을 중심으로 나주와 장흥을 잇는 국가생물 의약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함평군도 이번 변경안 통과로 기존 조성 이 마무리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의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축산 가공산업 유치를 통한 축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 (안) 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최대 10배 안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와 협의·확정한 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입단지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변경안 통과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상 전국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km)에서 105개(35.21km)로 14개(5.04km) 늘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직장인 야간노무상담 예약제 이용하세요”

광주 일가정양립본부 운영 긴급아이돌봄센터 연계도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직장맘' 맞춤형 노무상담을 위해 '직장맘을 위한 야간노무상담'을 개시한다.

야간노무상담은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의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유지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해결단'과 전화상담을 통한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을 확대 강화한 것이다.

상담분야는 육아휴직 등 모성권 보호와 부당한 차별대우 등 직장맘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 전반의 고충문제를 다룬다.

'야간노무상담 예약제'는 사전예약을 통해 평일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실시된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비롯해 원하는 장소에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무심층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사건접수 등 권리구제지원과 심리상담도 가능하다. 또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본부 내 긴급아이돌봄센터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직장맘은 물론 '직장대디'도 육아휴직 등 부성권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받을 수 있다. 예약 문의나 자세한 내용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로 문의하면 된다.

제순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야간노무상담이 직장맘의 경력유지와 고충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장맘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생활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 키우고 일하기 좋은 광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TV홈쇼핑 통해 판매된다

광주시-SK스토아 업무협약

광주시와 SK스토아(주)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SK스토아(주)는 8일 오후 시청에서 '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광주시는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발굴해 판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SK스토아(주)는 컨설팅 등 광주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이 고객들에게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양 기관은 광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홍보, 경쟁력 강화, 유통채널 연계 협력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은 TV홈쇼핑,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미 실리콘밸리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지역 중소기업,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함께 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SOSV 벤처캐피탈을 방문해 SOSV 연구소 HAX 의 이단하이(Ethan Haigh) 프로그램 기술자 겸 투자업무 담당자로부터 투자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소개받고 있다.

정부, 태풍 피해 벼 산물벼로도 매입키로

전남도 건의 수용...RPC 통해

정부가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 가을 3차례의 태풍과 잦은 강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산물벼나 건조벼로 매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건조벼로만 매입하기로 했지만, 전남도의 적극적인 건의로 지역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산물벼로도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9일 "건조벼로만 매입할 경우 농민들이 벼 건조에 어려움을 받을 것을 감안, 지역농협 RPC를 통해 산물벼로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피해 벼 정부 매입은 일반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달리 시·군별로 지정된 품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난해 품종 혼합으로 패널리티를 받은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가 직접 출하 또는 농협을 통해 출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령농가나 부녀자농가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가을철 농번기 일손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에서는 이번 3차례의 태풍으로 벼 쓰러짐(도복) 1만7559ha, 까맣게 변함(흑수) 1만4290ha, 하얗게 마름(백수) 2166ha, 낱알에서 싹틈(수발아) 1476ha 등 총 3만5491ha의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이를 전량 정부에서 매입해줄 것과 잠정등외품 가격을 인상해주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불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 쟁결음

근로 정주여건 개선·기업 혁신 인프라 확충 등 543억원 확보

전남도가 '대불산단 도로 환경개선 사업'과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사업'에 국비 543억원을 확보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불산단 도로 환경 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산단 주요도로인 나불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3km)를 제거하는 사업이다. 30·35

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산단 기업들은 그동안 도로 위 중앙분리대 때문에 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영암군, 경찰서, 기업체 등과 함께 '대불산단 환경개선 합동 간담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9월 행정

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영암군은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불산단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전남도는 문화·편의시설 등 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혁신 인프라 확충 등 청년 취업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기숙사

임차료, 알뜰미농 소형선박 개발 지원 등 7개 공모사업 등에 국비 538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알뜰미농 소형선박 개발 지원사업은 전남 중소 조선사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알뜰미농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영암군, (재)중소조선연구원 등 63억원을 포함해 총 115억원을 들여 영암 대불산단에 장비동 1개를 건립하고 2022년까지 15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식품위생업소 진흥기금 지원 대상 확대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 중인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규칙제정에 따라 15일부터는 영업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3억원(연1%)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연2%)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000만원(연2%) ▲화장실만 개선했 경우 1000만원(연2%) 등이다.

융자조건은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



천년의 정향! 백년의 미소!

제14회 순창장류축제

2019. 10. 18(금) ~ 20(일) 3일간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축제 HOT 이슈!

- 도전! 다함께 순창고추장 만들자!
- 지상최고의 순창떡볶이 오픈파티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장류소스 숯불구이 체험

순창의 밤은 낮보다 Shine 하다!

- 유명DJ와 함께하는 EDM쇼!
- 종횡무진 '좀비야 놀자'
- 강천산 단월 야행!

10.18(금) 전국 탭댄 가요쇼



송가인 (미스트롯)

10.19(토) 휘성콘서트



김소유 (미스트롯)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강진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계은숙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휘성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윤형주 (세시봉)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김세환 (세시봉)

10.20(일) 포크송 페스티벌



길구봉구

| 주최·주관 | 순창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